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14>

'금강경' 공관법 수행

일체의 법을 밝히 깨달으신 부처님의 안목에서 볼 때는 세상의 온갖 존재는 실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의 무명과 망상을 따라 나타난 모든 것은 무상(無常)하고 무아(無我)인 까닭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실체가 없는 거짓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대승의 불교에서는 공(空)이라고 합니다. 존재하는 것 같으나 그 본질은 모두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관법(空觀法)이란 이미 대승의 선정에서 말했듯 자신과 세계의 근원인 마음을 관찰하여, 일체를 진실되게 있다고 보지 않고 공하다고 보는 공부법

입니다. 이 공관법을 다른 표현으로는 허망관(虛妄觀)이라고도 하고 환관(幻觀)이라고도 하며 무상관(無常觀)이라고도 합니다. 허망관이란 모든 것을 보되 헛되고 망령된 것으로 관찰하는 법이고, 무상관이란 일체의 모습이 본래는 모습이랄 게 없는 것으로 관찰하는 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강경>의 공관법을 수행하는 방법과 그 과정들에 대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관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라는 게송,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헛되고 거짓되어 진실이 아니다. 만약에 모든 상들을 접하더라도 그 상들이 진실한 상이 아니라고 보면, 곧바로 부처님을 본다"는 설법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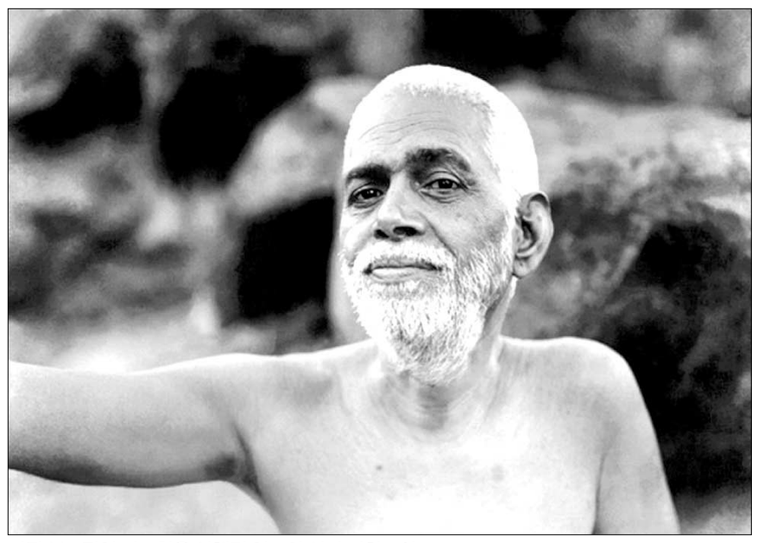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 이 게송 가운데 특히 앞의 두 구절인 '범소유상 개시허망'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사구게중 뒷구절인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를 생략하고 '범소유상 개시허망'만 하는 이유는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임을 관하는 것이 곧 '약견제상비상'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즉견여래'는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관법 공부는 만법의 근원인 마음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마음의 속성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들어가는 공부임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본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

번뇌 먼저 봐야 지혜·깨달음 본다

습니다. 이것을 대답하기 전에 불교에서는 마음을 논할 때 누구나 지니고 있는 마음에는 본래부터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깨달음과 지혜로써의 진여심 즉 여래심입니다. 수행의 목적이 중생심을 버리고 진여심을 얻으려는 데 있음은 두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따라서 관법 공부의 목적은 번뇌와 무지로서의 중생심과 깨달음과 지혜로서의 진여심 모두를 보는 것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법 공부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일차적으로는 번뇌와 무지로서의 중생심을 우선 보는 공부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지혜로서의 진여심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푸른 하늘에 검은 구름이 끼어 있다고 할 때, 푸른 허공을 보려면 검은 구름을 보다 보면 검은 구름이 사라질 때 푸른 허공을 볼 수 있듯, 관법 공부도 일단은 번뇌와 무지의 마음을 봄으로써 최종적으로 지혜와 깨달음까지도 보게 하는 것입니다.

■ 유마선원장



가장 불교적인 가르침을 설했던 인도의 성자 마하르쉬.

"고통은 몸과 마음을 나로 아는 무지에서 온다"

대성 스님譯 아루나찰나 총서를 통해 본

마하르쉬의 '나는 누구인가' 탐구법 무엇이 禪과 같고 다른가

'20세기 인도의 성자'로 불리우는 슈리 라마나 마하르쉬(Sri Maharshi Maharshi, 1879~1950). 칭찬에 인색했던 오쇼 라즈니쉬는 그를 가리켜 "천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분"이라고 극찬했고, 달라이 라마는 "그의 영적인 위대성은 수백만 사람들의 길을 비춰 주며 고통받는 인류에게 위안을 준다"고 존경했다. 그가 입적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는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의 한 사람이며, 아루나찰라에 있는 그의 아쉬람에는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오는 구도자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대성 스님이 최근 번역한 <바가반과 함께 한 나날>(탐구사)을 비롯해 <라마나 마하르쉬와의 대담> <라마나 마하르쉬와 진아지의 길> <무심(無心)-나는 진아다> 등 19권에 달하는 아루나찰라 총서를 잇달아 펴내 수행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교 특히, 선(禪)과 가장 유사한 가르침을 전한 인도 성자로 평가받고 있는 마하르쉬. 그의 가르침은 어떤 점에서 불교 수행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것일까.

아루나찰라 총서에서 드러난 마하르쉬 설법의 특징은 종교적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진아(眞我)를 직접 체험케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마하르쉬에 따르면, 사람들이 완전무결한 실재로서의 자신의 본성을 망각하고 생사윤회를 거듭하며 고통받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육체나 마음을 자기 자신으로 아는 무지 때문이다. 따라서 이 '육체가 나'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에고를 소멸하면 순수한 존재이자 의식인 '진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에고는 자신의 밖으로 세계를 투사하여 이 세계와 자신의 육체가 실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세계는 마치 꿈속에서 자신이 창조한 세계처럼 실재하지 않는 하나의 환(幻)일 뿐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자신의 에고를 소멸하면, 이 물리적 세계 또한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소멸되고, 이때 자신의 참된 성품인 진아가 찬연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자신이 일체에 두루한 영원한 실재임을 깨닫게 된다.

뛰어난 깨달음의 지혜, 고매한 인격과 가장 단순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깨달음이란 이상과 실천이 지금도 유효함을 입증했다는 마하르쉬. 간화선의 '이뭣고' 화두와 유사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으로 집약되는 '자기탐구'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는 여러 길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했다고 평가받는 그의 가르침에 대해 알아본다.

▮진아란 무엇인가?

마하르쉬의 '진아'는 단순한 '무아' 개념의 상대어가 아니라 유아와 무아, 비아와 비무아를 모두 넘어선 개념이다. 이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생각으로 분별할 수도 없는 궁극적인 그 무엇, 즉 해탈 혹은 열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불성, 본래면목, '한 물건' 등으로 표현했다. 즉 진아, 불성 등의 용어는 해탈의 상태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남방불교 수행자들의 지적처럼 어떤 영원불멸한 실체의 있고 없음 그 자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성 스님은 이에 대해 금강경식의 어법을 빌려 "진아는 곧 진아가 아니니, 그 이름이 진아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나는 누구인가'의 탐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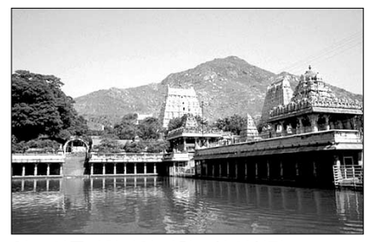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은 다른 모든 생각들을 소멸시킨 뒤에, 화장터의 장작불을 쑤시는 막대기처럼 마지막에는 그 자체도 소멸됩니다. 이때 거기서 진아 깨달음(Self-realization)이 일어납니다." 마하르쉬는 '나는 누구인가?'란 의문을 끊임없이 착파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했다.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이 생각이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하고 물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생각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 생각이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하고 꾸준히 물어야 합니다. 이때 나오는 답은 '나에게'일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고 탐구해 들어가면, 마음은 그 근원으로 돌아가고 일어났던 생각은 가라앉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수행해 나가면 마음은 그 근원에 머무르는 법을 스스로 익히게 됩니다."

▮'이뭣고'와 다른 점

'이뭣고' 화두가 오로지 알 수 없는 간절한 의심을 강조하는 반면, '나는 누구인가'는 '내가 있다'는 각성을 물고 늘어지라고 하는 점이 다르다. 마하르쉬는 (육신의 나가 아닌) '내가 있다'에 대한 자각을 이렇게 말한다. "'내가 있다'만이 누구에게나 영속적이며 자명한 경험입니다. 사람들이 자명하다고 하는 것, 즉 감각 기관을 통한 경험은 결코 자명하지 않습니다. 자기(진아)만이 자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탐구를 하여 그 '내가 있다'가 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가 있다'가 실재입니다. '나는 이것이다 혹은 저것이다'는 실재가 아닙니다. '내가 있다'가 진리이며, 진아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깨달음-해탈이란?

마하르쉬는 "속박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성품을 탐구하여 자신의 참된 성품을 깨닫는 것이 해탈"이라고 말한다. 선종에서 말하는 명심견성(明心見性)과 유사하다. 마하르쉬는 '우리의 참된 성품은 이미 해탈되어 있다'고 단언한다. "해탈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해탈을 희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움이 우리의 참된 성품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새롭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박되어 있다고 상상하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힘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속박되어 있다는 그릇된 관념을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탈을 바라는 한, 그만큼 오래 우리는 속박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음은 그것을 바라는 조금의 집착이나 분별심이 남아있는



인도 아루나찰라의 마하르쉬 아쉬람.

한 성취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일체의 인위적인 조작을 쉬고 무심(無心)해질 때 이미 깨달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선의 가르침과 비슷하다.

▮마음과 진아의 차이

마하르쉬에 따르면 마음과 진아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마음이 내부로 향하면 곧 진아요, 외부로 향하면 에고와 모든 세계(현상계)가 된다. 그는 마음과 진아의 관계를 '거미와 거미줄의 비유'로 설명한다. "거미가 몸 밖으로 거미줄을 뽑아냈다가 다시 몸 안으로 거두어들이듯이, 마음도 자신의 밖으로 세계를 투사했다가 그것을 다시 자신의 안으로 흡수합니다. 마음이 진아 밖으로 나올 때 세계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세계가 (실재하는 것으로) 보일 때 진아는 나타나지 않고, 진아가 나타날 때(빛날 때) 세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하르쉬는 "우리가 마음의 본질을 끈질기게 탐구해 들어가면 마음은 진아만 남겨놓고 소멸된다"고 말한다.

김재경 기자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5일간의 체험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 마하가섭은 8일 만에 지혜의 눈이 열려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였고, 오늘날 중국 백림사와 보봉사에서는 찰나에 깨치는 3일간의 충격적 수행법이 있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열의와 소망만 있으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수행해도 얻기 힘든 무심과 깨침을 5일간 체험해 보십시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명확합니다.

이론없는 수행은 위험, 수련없는 이론은 공허

빈마음수련원 (구, 대광사)
문의 : 033-435-8166 / master@binmaum.org
www.binmaum.org / 한글인터넷주소 : 생각기술교육원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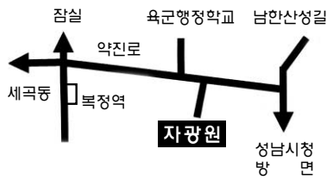
지역속에 보존자라 기도처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엄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영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영당 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당어리 황금당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